자비의 '연탄나눔', 한파 이길 '溫情' 되다

아름다운동행 개미마을 아이연탄맨 전달 현장

원행 스님 등 100여 봉사자 동참 승속 떠나 연탄 나르며 이야기꽃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홍제동 개미마을 80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짝 미소짓고 있다.

"여기 이것 좀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 조심히 던지세요!"

"힘드시죠? 같이 나릅시다!"

한파가 몰아친 12월, 홍제동 백사마을에는 자비의 연탄을 다르는 열기로 가득했다. 백사마을 입구 높게 쌓여있는 연탄을 스님들이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들어 전달한다. 추운 날씨에 연탄을 전달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손과 발은 시렵지만 백사마을 쪽방마다 연탄이 쌓일수록 마음은 따뜻해져갔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20일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나눔 '아이연탄맨' 행사를 진행했다.

개미마을은 총 80가구가 도시가스 혜택도 없이 한겨울을 나는 곳이다. 이들에게 연탄은 일종의 생명줄과 같다. 이날 아름다운동행 측은 이들 가구에 각각 200개씩 총 1만 6000장을 전달하고, 쌀과 라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마치 이날을 기다린 듯 중무장한 채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고무장갑과 모자 등으로 한기를 막은 스님은 여느 봉사자처럼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을 날랐다.

이런 스님들의 열정에 불자들도 동참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포교사단, 불교포럼 참가자, 동대 부속고 교사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마치 개미집처럼 골목길이 나 있다는 개미마을, 좁은 통로에 일렬로 길게 줄을 지어 선 봉사자들은 서로에게 연탄을 전달하며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눴다. 피어나는 이야기 꽃에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도 함께 피고, 추웠던 바깥 공기는 이내 따뜻해졌다.

원행 스님은 "추운 겨울을 작은 온기라도 전해주고 싶어 이렇게 직접 왔다.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개미마을 주민들을 격려했다.

또 스님은 봉사자들에게도 "힘든 종무활동 중에도 주변의 소외된 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 수행과 실천은 함께 가야 한다. 오늘 같은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펼쳐져 불교가 사회를 맑게 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현웅 봉사자는 "날씨가 추웠지만, 연탄을 배달하는 시간이 아닌 마음을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불자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탄 전달은 개미마을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올해 연탄 기부가 저조한 상황으로 개미마을이나 쪽방촌의 경우 연탄 공급이 부족하다. 또 연탄 가격과 쌀, 라면 등 식자재 가격도 인상돼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200장의 연탄이 집안에 쌓이는 것을 본 김을숙 씨는 직접 전달해주는 봉사자들의 모습에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김 씨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불교계의 도움으로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지역 연계 필요하다"

불교문화사업단 18일 포럼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이자, 불교계의 대표 상품인 '템플스테이' 의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관광, 템플스테이와 만나다'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02년 첫 도입된 템플스테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연계, 공익담당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외국인 숙박시설 해결과 한국문화 체험 제공 차원에서 시작됐다. 현재 130여 운영사찰에 연간 20만명 이상이 체험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병길 동국대

사찰 콘텐츠서 지역상품으로 통합 마케팅 등 혁신 주문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는 "템플스테이는 국민 스트레스, 계층간 갈등, 가족 해체 등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소외계층에 용기와 희망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발전 협력까지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는 나눔가치 실현이란 사회 공익적 역할 확대를 통해 국민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며 "지역문화자원 연계 운영체계 강화로 국민체험 기회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선임연구원은 "통합 마케팅 체제를 통해 정보를 수요자인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공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현재 국내 · 외 홍보 및 콘텐츠 강화 단계를 거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운영사찰별 프로그램 특성화의 직접 마케팅 등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노동 '결실' · 대북 '청신호'…대사회 일익

2018 사회 결산

장기연대 노동장 '복직' 성과 종단 역사기념행사 참여 활발 피해자 치유위한 불교적 고민 향후 대북교류사업 진전 기대



환수금 해결 후 원행 스님을 예방한 KTX노조.


서울 광화문서 조계종 스님들이 제주4.3 영산재를 진행하는 모습.


금강산 신계사서 주지 진각 스님(왼쪽)과 만난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오른쪽).

불교계는 올 한 해 사회 분야서 분명한 존재감을 보였다. 역사적 사건의 기념추모행사를 주도하며 희생자들의 아픔을 불교적인 방식으로 보듬는 한편, 정체된 노동인권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남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해결 과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노동자와 함께한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장기간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KTX승무원 노조가 7월 해고자 전원복직을 합의한 데 이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역시 9월, 복직 합의를 타결했다. 사노위는 수년간 노동인권 투쟁을 지지하며 진력해온 사업장의 복직 소식에 함께 기쁨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불교계가 주도한 종교계 중재안으로 KTX노조의 환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불교가 노동인권 문제에 앞장서는 종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노위는 미해결 · 소규모 사업투쟁장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4.3' 역사 기억

2018년은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행보가 돋보였다. 불교계는 관련 기념추모행사에 적극 참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 불교적 치유 방식을 고민했다.

조계종은 연초 '4.3희생자유족회' 의 요청에 따라, 제주와 서울 광화문서 열린 4.3사건 추모식 일환으로 영산재를 봉행했다. 또한, 추념기간 전국 교구본사에 추모 · 위령 현수막을 게재하고 법회를 이어가는 등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제주불교계를 중심으로 불교적인 4.3기억 및 치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있었다. 관음사 4.3 둘레길 조성 계획을 세우고,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는 미처 알려지지 않은 제주불교 피해사실 등을 조명한 데서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이뤄진 관련 피해 및 유적 조사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모위령시설 건립사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개된 남북불교 대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1년만의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계기로 그간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들어섰다. 국제 정세에 따른 화해의 훈풍이 불교계에도 불어와 남북불교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조계종 대북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를 중심으로 스님들의 잇단 방북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2015년 10월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공동법회 이후 3년만이다.

이와 관련, 추후 불교계 사찰문화재 복원 및 북한 사찰 템플스테이 등을 위한 민간교류 필요성을 환기하며 대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진전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부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북측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만큼 실질적인 사업 준비가 구체화될지 교계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원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